



# 지식재산처, 수출기업 직접 찾아가 지식재산(IP) 분쟁 예방 돕는다!

- 수출기업 맞춤형 지식재산 분쟁 위험 진단·처방 서비스 「IP분쟁닥터」 신청 접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IP)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사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IP분쟁닥터」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개별 기업까지 확대하고, 7월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찾아가는 IP분쟁닥터」는 주요 수출 소비재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왔으나, 앞으로는 개별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1개 회사도 가능)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특허·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희망 분야와 관심 내용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지식재산처의 전문 변호사·변리사로 구성된 「IP분쟁닥터」가 직접 방문해 해당 기업의 업종·진출국가·분쟁 위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진단과 처방을 제공한다. 필요 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K-브랜드 분쟁 대응 지원 등 지원 사업 연계도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식재산처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건은 지역·업종·희망 분야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지재처 누리집(www.moip.go.kr) → 정책/업무 → 지원시책 → 지식재산권교육·지문지원 → 찾아가는 지식재산(IP) 현장지원 운영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찾아가는 IP분쟁닥터」 현장지원은 해외 진출기업의 지식재산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첫걸음”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와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 맞춤형 진단과 처방 및 교육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상표분쟁대응과	책임자	과장	정일남 (042-481-1502)
		담당자	사무관	김가현 (042-481-8282)
			주무관	하윤정 (042-481-8280)